

#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2014년 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을 되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 국민이 힘겹게 지낸 한해였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양적완화규모 축소 계획이 올해는 본격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국내자금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환류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냉각시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손보시장이 2013년 처음 한 자리 수로 성장세가 둔화된 점에서 볼 때, 소비 위축에 따른 저성장 기조는 일본 손해보험시장에서 나타난 장기불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인 KFPA 경영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방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위한 출발에 불과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협회의 핵심 업무인 안전점검의 화재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금년도 우리 협회의 중점 추진업무인 자연재해 위험관리 서비스 기반 구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甲午年

자연재해 잠재위험 평가에 필요한 DB를 구축하고 전체 점검물건에 대한 풍수재 등 위험도 지수를 산출·제공함으로써, 화재를 넘어 자연재해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 시험·연구·교육 서비스, 방재컨설팅 서비스, 중요보안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낙수천석(落水穿石)’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낙수천석의 의지와 열정으로 협회의 경영이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 탄탄한 근육질로 대지를 박차고 도약하는 말처럼 힘차게 새해를 향해 달려갑시다!

갑오년 새해, 여러분 모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1.

KFPA 이사장 이 기 영

